

신명과 흥이 어우러진 농악의 진면목 선사



농경사회에서 언제나 함께 호흡하고 힘든 농사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높이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향토음악임과 동시에 민속 종합예술인 농악(풍물).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잊혀가는 우리 가락과 문화를 통해 고은(鼓隱) 이동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장을 마련해 관객들에게 재미와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의 대공연이 성황리에 펼쳐졌다.

"2016 부안마실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 이 대회는 부안농악의 화려한 부활로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풍물의 진수를 유감없이 선보였다.

부안농악보존회가 주최·주관하는 "제4회 부안 전국농악경연대회"는 전국 최초 소 도읍 거리형 축제로 개최될 '2016 부안마실축제' 행사 기간인 지난 8일 부안군청 광장에서 신명과 흥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 농악의 진면목을 마음껏 즐겨 흔치않은 자리였다.

전국농악 경연대회 4회째 만에 명실공히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전북을 비롯한 전남 등 전라도는 물론 서

서울·경기·강원등 8개 시·도 10개 농악단 열띤 경합

설장고 명인 고은 이동원 선생 추모 대회로 전통음악 육성 의장

울·경기·경남 북, 강원 등 전국 각 지역에서 15개팀이 접수, 선착순 10개팀이 경연을 벌여 농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이날 대회에서 일반부 대상(국회의장)에 경기도 화성두레농악보존회,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 경북 청도차산농악, 우수상(전북지사 상)에 춘천농악보존회에 장려상(부안군수)에 부안 바람꽃, 장려상(부안군의회의장)에 화성실버두레. 영예의 대상은 300만 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부안농악보존회 이옥수 회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설장고

의 명인 고은(鼓隱) 이동원 선생을 추모하는 대회로 전국에서 우수 농악 팀들이 대거 참가해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한 만큼, 부안농악보존회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육성해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지역 국악계의 대표 예술인으로 부안의 호남우도 농악을 널리 보급하다 영면에든지 올해로 27주기를 맞는 고(故) 이동원(李東元) 선생(1922~1990)은 17살(1939년) 때부터 장구 명인 김홍집 선생에게 가락을 사사받아 장구인생을 걸어왔다.

이후, 김홍집 선생의 제자 김승길에게 장고가락 중 "후두

가락"을 사사한 뒤 상쇠 명인 김바우 농악대 설장고로 활동했다.

고창의 상쇠 박성근 농악대와 신두옥 농악대에서 최막동과 함께 활동하면서 전성기를 맞은 등 부안 김경천·박남식과 함께 부안여성농악대를 창단하는 등 장구 후계자 양성에 주력한 결과 전남 여수 임재식, 익산 김형순(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등 다수의 명인을 배출하기에 이른 다.

또, 1961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농악대 부장구 부문 전북대표로 출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최고조의 실력을 과시한 데 이어 1977년 제4회 전북농악경연대회 설장고 개인연기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다.

1982년에는 전북농악경연대회 부안상서농악을 지도 최우수상, 1986년 전주 대 사슴 농악부문 차상, 전라예술제 전국농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1987년 부안군민의 장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받아 장남 보존회장인 이옥수씨가 전수되어 활동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2016. 5. 13 - 5. 16 VISIT NAMWON CHUNHYANG FESTIVAL

춘향제를 축하하자!

사랑춤 플래시몹 대작전

5. 14 ~ 5. 15 / 차 없는 거리에서 / 누구나 / 사랑춤을 덩실덩실 추어보세 ~ 춘향! 꺼지지 않는 사랑

제86회 춘향제 남원

주최 | 남원시 춘향문화선양회 주관 | 제86회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인공관개사업추진위원회 전라북도 금남민속극원 국립무형유산원 재외동포문화원